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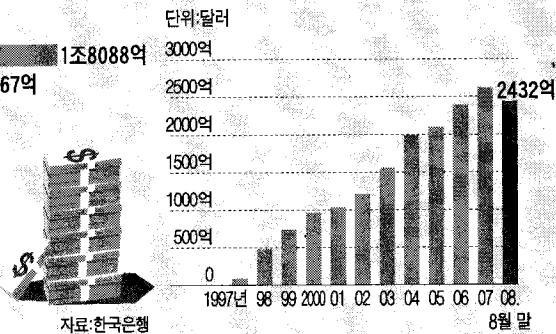
TenTeen 경제



주요국 외환보유액

	단위: 달러
중국	1조8088억
일본	9967억
러시아	5816억
인도	2953억
대만	2821억
한국	2432억
브라질	2051억
싱가포르	1701억
홍콩	1581억
독일	1371억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외환보유액

요즘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느니, 그렇지 않다느니 하는 논란이 이곳 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이란 단어도 신문에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눈치 빠른 틴틴 친구는 신문을 읽으면서 외환보유액이란 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다른 나라 돈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챘을 거예요. 오늘은 외환보유액이 정확히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하기에 부족하면 큰일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 알아볼까요.

외환보유액이란 우리나라가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놓은 외화 재산이에요. 일종의 비상금인 셈이죠. 기업이나 일반 은행 등이 갖고 있는 외화는 외환보유액으로 치지 않아요. 나라가 급하다고 해서 기업이나 일반 은행에 “가진 외화 내놔라”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외환보유액이란 정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화 재산만을 가리킵니다.

이 비상금은 언제 쓰는 걸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요즘처럼 환율이 급등할 때 필요해요. 우리나라처럼 물건을 많이 수입해 쓰는 나라는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가 크게 오릅니다.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때 10달러짜리를 수입하면 1만원이지

지금 2400억 달러 쌓아놔 외환위기 직전 30배 육박 정부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일부선 “환투기 땐 역부족”

만, 1250원일 때는 1만2500원이 되니까요. 이렇게 물가가 급히 오르면 모두들 살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환율이 급히 오르면 정부는 갖고 있던 달러(외환)를 내다 팔아 환율을 안정시킵니다. 경제에는 대체로 ‘흔하면 싸다’는 법칙이 있어서, 이렇게 정부가 달러를 내다 팔면 달리가 보다 흔해지면서 환율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외환보유액은 다른 나라에 빚진 돈을 갚을 때도 필요해요. 다른 나라들은 돈을 돌려받을 때 세계 어디에 서든 쓰이는 달러나 유로 같은 것으로 반기를 원해요.

사실 외환보유액이 풍족하면 꿔준 나라나 금융회사들이 갚으라는 소리도 잘 안 합니다. 또 서로 돈을 꿔주려고 하죠. 외환보유액을 보고서 “저렇게 돈이 많으니 떼일 염려가 없겠다”고 생각해 돈을 빌려주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돈을 빌리기 힘들겠죠. 게다가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받기 십상이에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달러를 빌려 급한 불은 껐지만, 대신 IMF 요구대로 부실 금융회사와 기업들을 정리하느라 흉역을 치렀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약 2400억 달러(약 300조원) 정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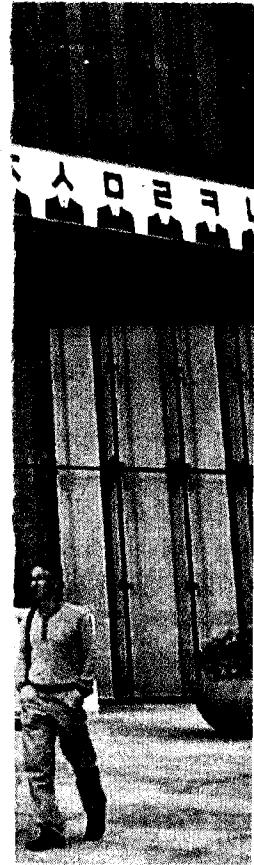
외환을 갖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89억 달러)의 30배에 가깝죠.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해 무역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외국 회사들이 한국에 지점을 만들면서 투자를 했고, 또 한국 주식도 많이 샀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될까요. 밖에서 달러 같은 외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출을 하면 돈을 받지 않겠어요. 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도 자기 나라가 가진 외환을 갖고 들어와서는 원화로 바꿔야 해요. 이렇게 되면 나라 안에 외화가 넘치고, ‘흔하면 싸다’는 법칙 때문에 환율이 떨어집니다. 환율은 너무 올라도 좋지 않지만, 너무 떨어져도 문제예요. 당장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정부나 중앙은행은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외화를 사들입니다. 이게 쌓여 외환보유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400억 달러라는 외환보유액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까요. 물론 금고에 넣어두지는 않지요. 대신 적절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굴립니다’. 그래야 돈을 불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윳돈 중에서도 급할 때에 대비한 비상금은 대부분 찾아쓰기 쉬운 예금에 넣어두게 마련입니다. 나라 비상금인 외환보유액

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대부분 선진국에 꿔주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의 ‘국채’를 사는 거죠. 미국의 국채란 ‘이것을 가진 사람은 액면에 표시된 금액 만큼을 미국에 빌려줬으며, 그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증서예요. 이런 국채는 서로 사고 팔기도 합니다. 비상시에 바로 팔아 외화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가 외환보유액의 투자 대상으로 미국 국채를 선호합니다. 부도 날 염려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외환보유액을 미국 국채에만 쏟아붓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다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외환보유액은 달러뿐 아니라 유로나 엔화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재산에도 투자를 해놓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는데, 달러 쪽에 얼마, 유로에 얼마를 넣어놓았는지(외환 포트폴리오)는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섯째로 많은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어떨 때는 외환보유액 중에 달러 비중을 80%로 했다가, 어떤 때는 70%로 줄였다가 하는 것을 낱낱이 공개하면, 시장에 ‘달러가 대거 풀린다’는 정보가 돌면서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혁주 기자 woongjoo@joongang.co.kr



↑ '코모(COMO)'를 통해 한
!은 허한솔 작가의 작품 '문

한다

또 개별 기업을 대신해
남편단가를 협의할 수 있
는 요청에 대해서도 긍정
하겠다고 밝혔다.

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거
조치 등을 우려해 남편
롭게 조정할 수 없다며
‘정협의 대행제’를 요구
이라당은 9일 오전 국회에
중앙회와 간담회를 열어
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승혜 기자

sun@joongang.co.kr

↑ 군대에서 고급 술을 판
에서 1만원 정도에 팔리
잔 마셔도 취하지 않을

회실장은 “일반 레드와
5도 정도이지만 램브르
달콤한 맛이 특징”이라
매를 거쳐 이번 주부터
고 밝혔다. 이들 두 와인
1병 한 병에 1만2000원
고 있다. 와인포유 측은
1병 정도 팔릴 것으로 내
문병주 기자
yungjoo@joongang.co.kr

부동산 대폭락 오나 전문가 대담

**지금 집값 하락은
경기침체 때문
반등 가능성 충분**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왼쪽)와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서울 중구 종림동 한국경제신문사 인근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며 '부동산 대폭락'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거품붕괴 시작
앞으로 10년간
반토막 날 수도**

사회=정구학 건설부동산부장



“한국 집값에는 거품이 잔뜩 끼어 있어요. 집값이 향후 10년 동안 반토막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듯 이 경기침체로 집값도 함께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처럼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부동산 대폭락은 과연 올까. 이른바 ‘버블세븐’(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부동산 대폭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침체, 금리상승에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발(發) ‘금융 허리케인’까지 겹치면서 나온 전망이다. 반면 집값이 향후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신문은 최근 발간된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한경BP)의 저자인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전 서울시 정책전문관)과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부동산대학원장)를 초청, 8일 한국경제신문 회의실에서 ‘부동산 대폭락 오나’를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정구학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부장(사회)= 한국 집값은 현재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브레너 기여 대폭락으로 까지 이어질지 여부

“美·日 같은 거품정후 아직 없어” vs “수도권 집값 7년만에 4배…비정상”

능성이 있습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자산의 가격이 내재가치를 초과했을 때 거품이라고 하는데 현재 집값 하락은 내재가치 하락이 아닌 경기침체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자산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이를 두고 거품이 꺼진다고 말하지는 않지요.

◇선 부소장= 자산가격이 가계소득 수준에서 감당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면 거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를 직접 계량화해 측정하기는 힘들지요. 대신 간접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실질소득이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70%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수도권 집값 상승은 이를 훨씬 상회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는 2001년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400%인 6억 원이 넘어

요. 수도권 집값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손 교수= 통계를 보면 집값이 급등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통계에 따르면 1995년의 명목주택가격지수를 1로 했을 때 10년 후인 2005년 전국 지수는 1.3, 많이 올랐다는 강남도 1.8에 불과합니다. 소득 상승을 고려하면 강남 집값은 실질적으로 10% 오른데 불과합니다. 과연 이를 두고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 부소장= 주택가격 통계를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샘플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상을 봐야 합니다. 멀리 1995년까지 갈 것 없이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에서 조차 2배 이상 뛰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손 교수= 거품이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단순히 집값 상승률뿐만 아니라 거품으로 추정되는 징후

들이 나타납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죠. 1980년대 말 집값이 급등할 때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마구 빌려줬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취급되는 모기지) 사태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매수하는 집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대출비율)과 DTI(연소득 대비 대출비율) 규제가 엄격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죠.

◇사회=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선 부소장= 한국도 위험합니다. 강남에서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50% 이상 끼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80%를 넘는 곳도 상당수입니다. LTV가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60%에서 40%로 낮춘 2005년 6월 이전에 집을 사거나 LTV가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전세끼고 사는 것도 사실 돈 빌려 사는 것

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손 교수= 한국은 그렇다해도 미국에 비해 전체적인 LTV가 낮습니다. 또 미국처럼 담보가격을 넘어서는 돈을 받지 못하는 비소구(Non-Resource)대출이 아니라 담보가가 빚보다 낮아져도 차액을 갚도록 돼있다는 점도 안전요인입니다. 물론 저축은행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금융시스템 자체가 불안해질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주식도 투자하다가 반토막나는 경우가 허나하지 않습니다.

◇사회= 정부가 앞으로 펼쳐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선 부소장= 정부는 무엇보다 공급 위주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현재 미분양이 잔뜩 쌓여 있는데 신도시와 뉴타운을 늘리고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까지 풀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2010년께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면서 기존에 살던 주택 수나 규모를 줄일 것입니다. 반면 젊은 세대들은 집을 살 경제력이 점점 모자라지죠.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절정을 이루고 뉴타운과 신도시가 모두 들어설 2013년 이후에는 공급이 수요를 크게 넘치게 될 겁니다.

◇손 교수=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주택 수요 감소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실질소득이 3%만 올라도 수요가 충분히 공급을 따라갈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주택을 대량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어부산, 항공기·유니폼 공개

부산지역 항공사 '에어부산'은 8일 오전 김해공항에서 제1호기인 B737 항공기와 유니폼을 공개했다. 에어부산이 이번에 공개한 B737-500 항공기는 총 127석 규모로 동체 곁면에 바닷물결과 어우러져 힘차게 날갯짓하는 갈매기를 형상화한 이미지를 그렸고 동체는 네이비블루, 라이트블루, 라임그린, 화이트펄 등 4가지 색상으로 도색했다.

부산시와 부산지역 상공인, 아시아나항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에어부산은 지난 1일 홈페이지(flyairbusa.com)와 예약센터(1588-8009)를 통해 예약발권 업무를 개시했고 이달 말 정식 취항한다.

LG텔레콤은 8일 서울 상암동에서 새 사옥 준공식을 갖고 '생활로 전해지는 모바일 혁신, 앞서가는 일등 LGT'라는 새 비전을 발표했다.

정일재 LG텔레콤 사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상암동 사옥의 완공은 고객에게 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완성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발빠르게 개발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일등 기업으로 도약하는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LG텔레콤은 새 비전을 달성하

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주파수를 재분배할 때 효율성이 높은 우량 주파수를 우선 확보, 4세대(G) 이동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개방형 서비스인 모바일인터넷 '오즈'와 파격적인 요금 상품을 앞세워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LG텔레콤의 상암동 사옥은 대지면적 4986m², 연면적 5만8744m²에 지상 14층 규모로 마련됐다. 새 사옥은 재난 방지와 보안을 위한 첨단 시스템도 갖췄다. 건물 전체가 진도 8의 강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보안이 요구되는 공간에는 흥채를 인식해 출입을 관리하는 '인터록 도어(inter-lock-door)'를 설치했다.

LG텔레콤은 1996년 설립 후 서울 역삼동과 가산동 등지에서 지난 12년간의 셋방살이를 끝내고 자체 사옥을 마련, 일등 LGT 도약을 꿈꾸는 '상암동 시대'를 열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구본무 LG 회장과 강유식 LG 부회장,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남용 LG전자 부회장,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새 사옥 준공을 축하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LG스포츠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안성덕 LG솔라에너지 대표이사(사진 왼쪽)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안 대표는 1983년 LG전자에 입사해 카자흐스탄 법인장, 러시아 법인장 등을 거쳐 (주)LG가 2007년 태양광발전소 운영 전담 자회사로 설립한 LG솔라에너지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LG솔라에너지 는 이날 박명석 LG전자 책임연구원(오른쪽)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박 대표는 안성덕 대표를 보좌하며 태양광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다.

황칠진액, 술독(酒毒) 숙취 해소

지치고 손상된 간(肝), 위(胃)를 편안하게...

최근 술독(酒毒)을 풀어주고 간세포를 재생시키며 세포의 노화를 억제시키고, 정혈작용과 간을 살린다는 신비의 약재가 발견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칠나무는 한국고유수종으로 수피(樹皮)에서 나오는 황칠(黃漆)은 찬란한 금빛이며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 주는 안식향(安息香)을 함유하여 약리효과가 탁월한 신비의 나무로 각종 문헌들에서 알려주듯 황칠의 역사적 효능들은 가히 놀라운 정도다.

다산 정약용은 "보물중의 보물은 황칠이다"라고 극찬할 정도였으며 또한 지봉유설의 저자 이수광은 "세상에 이보다 더한 보물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황칠으뜸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수십년 묵은 체증도 녹이며 한번 막을 형성하면 만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는 황칠은 그 희귀성과 정제 방법의 난제로 그동안 일반인이 쉽게 접하고 체험해 볼 수도 없었다.

황칠나무가 간기능을 회복, 보호하고 간

염바이러스 및 간지방 제거에 뛰어나며 독성이 없으면서도 피로와 술독을 풀어주는 뛰어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황칠수액 속에 들어있는 다당체 물질이 다른 어느 수종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다당체가 수액속에 다량으로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경희대 약대, 한국과학기술원 및 유럽생명과학연구소 등에 의해 속

속 밝혀지면서 음주전후 숙취하면 술이 덜 취하고 다음 날도 가뿐하며 알코올 중독자



▲ 간기능을 회복시킨다는 황칠진액

◇ 황칠 관련 보도 자료

- 1992.9.13(KBS) 황칠을 찾아라...
- 1999.7.28(MBC) 황칠, 그 천년의 신비 (특집 MBC 다큐멘터리)
- 2003.7.28(KBS) 금빛으로 빛나는 황칠
- 2003.10.25(EBS) 잊혀져 가는 것들(황칠)
- 2005.8.20(한방TV) 황칠이 가지는 약리

나 술을 지나치게 마셔 지방간이나 황달이 생긴 사람도 이 나무를 달여 먹으면 감쪽같이 회복된다는 소문이 나자 무분별한 남벌로 현재 남해도 서지방에서만 자생할 뿐이다.

최근 황칠연구소에 의해 300년 동안 잊혀졌던 귀중한 황칠나무의 황칠액 채취법과 정제기법을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수천년의 신비로 남아있던 보물 중에 보물이라 일컬어지는 황칠은 술로 인해 간기능이 약해져 고생하시는 분, 혈액순환이 안되거나 나이보다 늙어보이는 분, 매사에 의욕이 없어 만사가 귀찮고 아침

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에게 황칠을 접하는 순간 편안하고 귀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자료제공 : 황칠연구소
문의 : 02-2644-4885

발명특허 제0526760호 - 체내 니코틴 분해효과와 다이옥신 독성감소의 식물 추출조성물

니코틴 뚝! 독소 안녕~

식물 추출물 신물질 성균관대학교 기능성식품공학연구팀 개발
옥타코사놀 관련 KBS, MBC, YTN, TV뉴스 및 각언론 집중보도



제품구성 : 360정×2병(720정)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 적합한 성원 옥타크린

D7 조선일보 제26775호 2007년 1월 24일 수요일

●성균관대 식품생명공학과 P교수팀은 체내에 쌓여 있는 니코틴, 다이옥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식물추출물(TF-343)을 개발했다. 해독 효과가 있는 삼백초, 인동, 민들레, 결명자, 감초 등 8종의 식물에서 분해성분을 추출, 국내 특허를 받았다.

조선일보 기사 발췌

개발 및 연구 성균관대학교 기능성식품생명공학연구실

■ 3일 섭취후 변화를 직접 확인 가능

옥타크린골드 주원료인 식물 추출물은 3일 이후면 체내노폐물이 분해되어 대, 소변으로 배출되면 소변색깔이 탁하고 양이 많아지며 피로감이 없어지며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3일정도 지나면 평소보다 많은 양의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을 느끼는데 니코틴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니코틴 부족으로 더 많은 양의 흡연욕구를 느끼지만 보름 정도 지나면 소변색깔도 정상으로 맑아지며 담배맛이 없어 흡연욕구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의지력 부족으로 2개월이 지나도 금연을 하지 못하는 분은 계속 드시게 되면 몇개월이 지나면 체내에 있는 니코틴이 모두 배출되어 담배를 피워도 몸 자체에서 거부 반응으로 기침과 구토등으로 처음 담배를 배울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금연에 성공 할 수 있다고 한다. 환경호르몬, 공해물질, 황사로 인하여 걱정만 하지 말고 중금속과 니코틴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면 피로감이 줄며 기력증진, 지구력이 증진된다고 학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흡연에는 꼭 금연에 성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생명을 단축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 2set 구입시 70년 역사의 보인당 연구진이 개발한 숙취단(24환) 1셋트 무료증정
본제품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 고시)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문의 : 1688-4631

과 선수들의 시즌 성적을 출출 퀘며 경기 결과를 예측했다. 한결같이 롯데 승리 쪽이었다. 회사원 김규백(39)씨는 “올해 부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 롯데는 부산 시민들에게 유일한 즐거움이다. 그렇다 보니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내친김에 꼭 우승해 부산 사람들이 어깨를 펴고 크게 한번 웃어보고 싶다”고도 했다.

택시기사들은 행선지를 “사직구장”이라고 하면 “표는 구했느냐”부터 물어온다. 승객이 말문을 열기도 전에 롯데 선수들을 일일이 거론하고 이들의 활약상을 출출 댈 정도다. 경기 운영에 대한 훈수가 야구 전문기를 방불

시민 대부분 선분사 같아

입장권을 구한 사람들도 이른 아침부터 줄을 늘어섰다. 먼저 입장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사직구장 일반석은 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관전과 응원하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경쟁이 치열하다. 손마다 들린 비닐봉투에는 음료수와 주류, 안주거리 등 먹거리가 가득했다. 부산 팬 특유의 응원을 위한 신문지를 가져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후 3시 출입구가 열리자 줄을 섰던 사람들이 전력질주해 응원단장 앞 등 소위 명당 자리를 차지했다. “인터넷 예매를 통해 표를 구

구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지난 해까지 8년간 롯데가 하위권을 맴돌면서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했다. “가을에도 야구하자”고 외쳐온 롯데팬들은 올해 롯데가 선전하면서 그간 쌓였던 야구에 대한 갈증을 한꺼번에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올 시즌 롯데가 21차례나 사직구장 만원을 기록하고 한 시즌 최다관중 기록(137만9735명)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허구연 MBC 야구해설위원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야구를 접하다 보니 부산시민들의 야구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허진우 기자
zzzmaster@joongang.co.kr

인천항 주변의 부두창고 등 노후화된 근대 건축물들이 미술관으로 되살아난다.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착공한 가칭 ‘중구미술문화공간’ 조성 공사를 11월까지 완공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9월 개관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미술문화공간은 인천시 중구 해안동 1가 8450㎡의 부지에 들어서 있는 13채의 근대 건축물을 복원하거나 리모델링해 조성된다. 1886년 세워진 해운업체인 일본우선주식회사의 사옥을 비롯해 대한통운 창고(1948년 건축), 삼우인쇄소(42년 건축), 대진상사(48년 건축) 사옥 등이 사업 대상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은 인천항과 차이나타운 주변, 과거 개항장 구역에 위치해 있다. 인천시는 이들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모두 110억 원을 들여 구조물이 위험한 7채는 복원작업을 통해 새로 짓고 6채는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을 통해 옛 모습을 되살렸다.

인천시는 내년 초 이들 건물에 미술전시관과 미술창작 스튜디오, 조형 예술 공방, 공연장, 게스트하우스 등 의 내부 배치를 마치고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 길게는 한 세기를 넘겨 전해져 온 근대 건축물들이 인천

미술관으로 리모델링 중인 인천시 해안동의 부두창고.

[인천시 제공]

예술 전반의 창작지원센터라는 의미를 담을 계획이다.

황의식 인천시 문화관광국장은 “개항기와 근대의 인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옛 건축물들을 보존·복원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환 기자
einbaum@joongang.co.kr

(광고)

침과 약실, 금침을 이용한 주름 제거 및 얼굴윤곽 개선

얼굴 처짐, 주름, 구안와사, 노화방지에 효과적

피부노화는 25세 이후부터 진행되며, 피부를 지지하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양이 계속 줄어들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나 얼굴 처짐이 나타나게 된다.

예맥한의원에서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침을 찌르거나, 침으로 약실, 금실을 피부 속에 넣어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처짐과 주름을 제거하고 피부를 팽팽하게 되살려주는 시술을 하고 있다.

침 요법과 금실이나 약실을 피부 속에 넣어주는 매선 요법은 기혈순환과 일정방향으로 원활해지도록 하고 근육을 부드럽게 하며,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모세포를 활성화하여 노화된 피부와 피부 속 연부조직(SMAS층)이 재생될 수 있도록 한다. 침으로 약실



을 피부 아래에 넣어 올려주면 연부 조직과 피부가 동시에 끌어올려져 피부 처짐을 빠르게 개선되며, 피부 아래로 들어간 한방 약실은 서서히 녹으면서 조직을 재생시켜, 주름이 제거되고 탄력이 유지되도록 해 준다.

이런 효능을 통해서 얼굴의 형태 변화, 주름 제거, 처짐 개선과 장기적인 효과 지속이 가능하다.

적용범위

- 얼굴 윤곽 : 처진 얼굴, 안면 축소, 깨진 불, 구안와사 후유증
- 주름 제거 : 팔자 주름, 미간 주름, 이마주름, 입가주름, 눈가주름, 눈밑주름, 목주름
- 체형 개선 : 가슴 처짐, 뱃살 처짐, 팔 처짐 허벅지축소

장점

- 간단한 시술로 흉터가 남지 않는다.
- 부종이나 출혈이 적어 회복기간 없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
- 시술 이후에 표정이 자연스럽다.
- 한방 약실의 경우 녹으면서 흡수되기 때문에 제거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맥한의원 www.dr-ym.com
한의학박사 정정욱 원장 최시원
02-515-3040
(논현역 3번 출구)

한번 먹으면 다시 찾는다. 백령도「약쑥흑염소」

‘싸주아리 약쑥과 방목 흑염소’ 냉허약 보양식 환절기선물로 인기



백령도는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 천혜의 청정 지역으로 화강암 모래 토양과 특유의 해풍·해무(바다안개)로 유명하다. 쑥이 잘 자라는 조건을 두루 갖췄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자란 쑥은 약쑥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친다. 이 지역에서 야생 그대로 자란 약쑥은 ‘싸주아리’라는 애칭이 붙는다.

백령물산은 최근 백령도에서 자란 싸주아리 약쑥을 원료로 건강 보양식품 ‘백령도 약쑥 흑염소’를 출시했다. 재배가 아닌 야생 토종 약쑥으로 만들었다. 백령도 약쑥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도 보기 드물게 ‘뮤코젠-E’라는 성분을 다양 함유하고 있어 위장을 편한하게 하는 세계적인 웰빙 식품으로 꼽힌다. 백령도 쑥은 향이 진하면서도 뒷맛이 달다. 회사 관계자는 “토종 싸주아리 중에서도 5월 단오 전까지 자란 약쑥만 채취해 음지에서 3년간 숙성시킨다. 이 중에서도 최상품만 선별해 정성으로 담아낸 최적의 건강식품이다”고 밝혔다. 쑥은 다른 채소보다 무기

2가지가 더 들어있다. 하나는 백령도 야산에서 방목한 흑염소다. 여러 가지 야생 약초를 뜯어먹고 자라 운동량과 영양이 풍부하다. 체력증진에 효과가 탁월해 오래 전부터 약용으로 방목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평생 한번 먹기도 어렵다는 산삼 배양근이다. 백령도 약쑥은 옹진군에서 특산단지 1호로 지정해 생산하는 전략상품으로 옹진군수 추천보증서도 첨부할 만큼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약쑥 제조에 관한 발명특허(제0429141호)와 함께 ISO 국제인증도 받았다.

백령물산은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1+1 이벤트를 한다. 약쑥 흑염소 42팩이 들어있는 1박스를 사면 1박스를 무료로 준다.

회사 관계자는 “백령도 싸주아리 약쑥은 한번 드셔보신분들이 효험을 체험하시고 몇년이 지나고서도 재주문하는 경우 우와 소개건수가 많다. 건강증진을 위해 자신있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문의 1688-5228

매케인 “모기지사 돈 안 받았나” 오바마 “당신 참모가 로비스트”

2차 TV토론 이모저모

오바마·매케인 간 두 번째 토론은 이전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위가 더 높았다. 평중과 인터넷 유권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에서 두 후보는 상대방을 매섭게 비판했다. 특히 수세에 몰린 매케인이 먼저 치고 나오면 오바마도 지지 않고 대응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그러나 토론 직전 양 후보 측이 주고받았던 노골적인 인신공격성 공방은 없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타운홀 미팅’ 방식이라는 형식이 서로에게 편치를 날리기 힘들게 했다고 분석했다. 15일 뉴욕주에서 열리는 마지막 토론 때는 후보 간 직접 질문이 다시 가능해진다.

2차 토론은 100여 명의 내슈빌 주민이 계단식 좌석에 앉아 지켜보는 가운데 두 후보가 이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차 때는 후보들이 각각 연단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이번에도 역시 경제 이슈가 최고의 관심사였다. 전체 토론 90분 중 절반을 차지했다. 다른 국내 문제가 15분, 외교·안보 분야가 30분 동안 논의됐다.



매케인-오바마 전기 만화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가 8일(현지시간) 발간됐다.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의 전기 만화 표지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만화 표지(왼쪽부터).

[샌디에이고 로이터=연합뉴스]

토론 초반 매케인이 “오바마는 패니 메이와 프레디맥으로부터 역사상 둘째로 많은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경전이 시작됐다.

오바마는 “내가 아니라 매케인 선거 책임자의 회사가 패니메이의 로비스트 일을 맡았다”며 역공을 뻤다.

두 후보는 특히 세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감정싸움을 벌였다. 매케인은 “수시로 변하는 오바마 세금 정책의 핵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른 젤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형 음식)를 못으로 고정하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오바마는 매케인이 유세를 위해 타고 다니는 전용기와 버스에 붙인 표어 ‘직

설 특급(Straight-Talk Express)’을 거론하면서 “특급에 바퀴가 빠져 버렸다”고 받아쳤다.

외교 분야에서도 날선 공방이 있었다. 매케인은 미국의 대파키스탄 정책을 언급하면서 “내 영웅인 태디 루스벨트(전 대통령은)는 (외교 분야에서) 말은 부드럽게 하면서도 손에는 큰 채찍을 쥐고 있었다. 그런데 오바마는 (채찍은 없이) 말만 요란하게 한다”고 공격했다. 쓴웃음을 지어 보이던 오바마는 사회자에게 추가로 답변할 권리를 요구했다. 그러자 매케인도 “그럼 나에게도 추가 발언권을 달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정해진 시간이 있다”며 오바마의 발언권 요구를 묵살했던 사회자 톰 브로커(NBC방송 앵커)는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추가 기회를 줬다. 오바마는 기다렸다는 듯 “이란에 폭탄을 퍼부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 매케인이다. 그게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매케인은 “사실이 아니다. (이란 폭탄 발언은) 참전용사들과의 자리에서 한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jwkim@joongang.co.kr



임창용
한·일 통산
200세이브

선동열·구대성 이어 세 번째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의 임창용(32)이 마침내 한·일 통산 200세이브를 달성했다. 선동열(삼성 감독), 구대성(한화)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기록이다.

임창용은 8일 도쿄 진구구장에서 열린 요코하마와의 홈 경기에서 4-1로 앞선 9회 등판해 세 타자를 간단히 삼자 범퇴시키고 팀 승리를 지켰다. 시즌 32번째 세이브(1승5패)이자 한·일 통산 200번째 세이브다. 광주진흥고를 졸업하고 1995년 해태에 입단한 임창용은 삼성을 거치며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13시즌 동안 168세이브를 기록했다. 97년부터 본격적인 마무리 투수로 뛰었고, 99년 삼성으로 이적한 뒤에는 마무리보다 선발투수로 더 많아 활약했다.

대기록 달성에 필요한 투구 수는 단 5개였다. 그것도 모두 직구였다. 첫 타자 사에키 다카히로를 초구에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낸 임창용은 후속 이시카와 다케히로도 공 3개만에 헛스

한·일 통산 세이브 기록 (8일 현재)

선수	한국	일본	합계
임창용(야쿠르트)	168	32	200
선동열(은퇴)	132	98	240
구대성(한화)	213	10	223

왕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볼카운트 2-0에서 승부구로 던진 바깥쪽 빠른 공은 이날 최고인 시속 151km였다. 기세가 오른 임창용은 마지막 타자 후지타 가즈아를 초구에 유격수 플라이로 처리하며 경기를 끝냈다.

일본 진출 첫해 30세이브를 돌파한 데 이어 한·일 통산 200세이브까지 따낸 임창용의 남은 목표는 일본 프로야구 데뷔 첫해 최다 세이브 타이기록이다. 2000년 주니치의 외국인 투수 에디 게일러드가 데뷔 첫해 35세이브를 기록했다.

시즌 잔여 경기가 3경기뿐이지만 임창용은 “30세이브를 올리면서 마음 속으로 가졌던 목표다.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다”고 욕심을 표시했다.

정희훈 기자
hoony@joongang.co.kr

KOSDAO
코스닥 상장 법인
(049180)

동아회원권그룹

본사 02) 538-1666 강북 02) 2269-1666 분당 031) 709-1666 대전 042) 476-1666
대구 053) 767-1666 부산 051) 464-1666 광주 062) 368-1666 www.dagolf.co.kr

베스트 5 평균나이 30.4세 ‘최고령’ 연륜의 신한은행 “질 줄을 몰라요”



여자프로농구
(WKBL)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신한은
행이 시즌 초반

부터 신바람이다. 개막 후 2연승, 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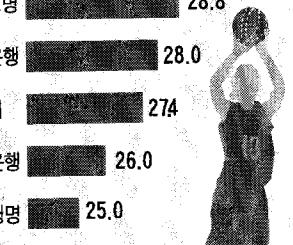
할 기세다. 나머지 5개 팀은 신한은행

공략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한은

행 주연에 나머지 팀 조연”이라는 말

이 공공연히 나온다. 신한은행의 힘,

노장들의 연륜에서 나온다.



일어나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듯 코트 바닥에 누워 호흡을 조절한 뒤 일어선다. 감독들의 항의, 상대 자유투로 시간이 멈춘 틈에도 쉰다. 간결하게 움직여 체력 소모를 최소화한다. 시즌 전에는 젊은 선수들 뜻지 않게 체력 훈련에 공을 들였다. 임 감독은 “전주원·정선민은 후배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체력 훈련을 잘 소화해냈다”고 전했다. 1라운드가 끝난 뒤 하은주 등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면 노장들의

체력은 ‘변수’ 축에도
들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삼성생명은 8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국민은행과의 홈

경기에서 흥보람(14득점)·박정은(18득점)의 활약에 힘입어 58-48로 승리했다. 삼성생명은 금호생명을 꺾은 데 이어 2연승을 내달리며 명가의 자존심을 지켰다. 자유계약선수(FA)로 삼성생명에서 국민은행으로 팀을 옮긴 변연하는 친정팀과의 첫 대결에서 5득점으로 부진했다.

반면 지난 시즌까지 변연하에 가려 있던 삼성생명의 3년차 흥보람은 2쿼터에 3점슛 3개를 포함해 1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채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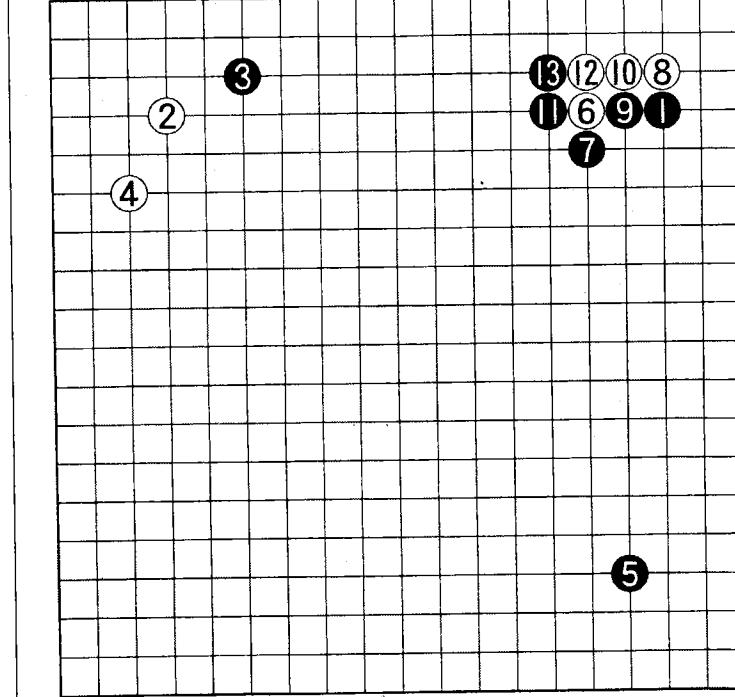
doorian@joongang.co.kr

경기 운영 안정…체력 조절 노하우 쌓여

“전주원·정선민 있는 한 잡을 팀 없을 것”

령 선수 전주원은 녹슬지 않은 감각으로 경기를 이끌어간다. 그의 리드 아래 정선민은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포를 날린다. 거기에 또 다른 30대 진미정은 수비와 외곽포로 지원한다. 임달식 신한은행 감독은 시즌 전 “최윤아·하은주 등이 부상으로 빠진 1라운드가 고비”라고 예상했다. 막상 뚜껑을 열자 “지난해보다 더 안정된 전력”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체력 문제도 ‘경험’으로 극복= 노장이 많은 팀은 ‘체력’이 아킬레스 건이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예외다. 한정된 체력을 효율적으로 쓸 줄 알기 때문이다. 체력 문제도 경험으로 극복한 것이다. 전주원·정선민은 경기 중 무작정 뛰지 않는다. 틈틈이 쉴 시간을 찾아낸다. 파울로 넘어지면 곧바로



제1보

교체됨에 따라 조직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후임인사를 실시했다.

체육진흥공단, 농산물 직거래 장터 열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일 서울 올림픽회관 앞에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나주 지역 배 농가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선수단 결단식

아시아비치경기대회(18~26일·인도네시아 빌리) 한국 선수단 결단식이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과 김창원 선수단장, 선수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스포츠 종계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요코하마(SBS스포츠·오후 5시50분)

오늘의 경기

LG스포츠 새 대표이사 안성덕씨

LG스포츠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안성덕 LG솔라에너지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LG스포츠는 전임 김영수 대표가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다, 최근 LG트윈스 단장과 스카우트 등이

▶준PO 2차전 ▶롯데-삼성(사직·KBS N, MBC ESPN, Xports·오후 6시)

◆여자농구 ▶우리은행-금호생명(총천호반체·SBS스포츠·오후 4시)

▶골프 신한동해오픈(레이크사이드·KBS2)